

韓國史上 最初의 精神病과 이의 治療에 關한 記錄*

A Reference to the First Authentic Case of Mental Illness in Korea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神經精神科學敎室

韓 東 世

韓國 最初로 記錄된 眞正한 정신병의 報告는 三國史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三國史記¹⁾는 高麗 第17代 仁宗 23年(西紀 1145年) 12월에 金富軾이 王命을 받들고 撰進한 것으로 新羅, 高句麗, 百濟 三國의 史實을 本記 28卷, 年表 3卷, 志 9卷, 列傳 10卷으로 나누어 모두 50卷으로 쓰인 책이다. 이 史記는 現存한 國史書로는 가장 오래 된 것이고, 三國遺事와 아울러 三國時代의 基本史料로서 韓國 最高의 古典이다. 三國史記의 卷第四十五 列傳 第5에 보면 祿眞이 나오는데 이를 完譯 三國史記²⁾에 따라 다음에 옮겨 본다.

祿眞은 姓과 字도 모두 未詳이다. 그의 父親은 一吉 胤秀奉이었다. 祿眞은 23歲에 처음으로 벼슬하여 內外官을 여러번 지내고, 憲德大王 10年(西紀 818)에 執事侍郎이 되었다. 憲德王 14年에 왕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同母弟 秀宗으로써 세자를 삼아 月池宮으로 들게 하였다. 이때 角干 忠恭은 上大等으로 되어 政事堂에 앉아 內外官과 함께 政事를 의논하는데, 公이 병이 들므로 國醫를 불러 診脈을 하니 醫官은 말하기를 “이 병은 心臟에 들었으므로 오직 龍齒湯을 써야 하겠다”고 하므로 드디어는 三七日의 휴가를 알리고 나와, 문을 닫고 들어 앉아 손님들도 만나 보지 아니하였다. 이때 祿眞은 기회를 만들어 公을 만나보고자 청하였으나 문지기의 거절을 당하였는데 祿眞은 말하기를 “下官은 相公이 병으로 손님을 사절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나, 오직 한말씀 친히 드려 울적한 근심을 열어드려 보려고 왔을 따름이니 꼭 만나보지 않고는 감히 물러가지 않겠다” 하며 문지기에게 재삼 요청하여 드디어는 만나 보게 되었다. 祿眞은 公을 보고 말하기를 “귀한 몸이 편안치 못하다 함을 들었어운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사를 파하지 않고 일하였으므로 감기의 범함을 입고 영위의 고름을 상하고 귀체의 안정을 잃었나이까?” 하니 상공은 말하기를 “다만 어지럽고 답답하여 정신이 불쾌할 따름이라” 하므로 祿眞이 말하기를 “그러면 公의 병환은 다만 약적으로 만든 안되고 침술로도 안되겠어요니 이는 알맞은 말로써 고쳐야 하겠읍니다. 公은 나의

말을 들어 볼 것입니까?” 하자 公은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멀리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와 빛을 주려 하니 좋은 말을 들려주어 나의 가슴속에 맺쳐 있는 답답한 생각을 깨끗이 씻어 주기를 바란다”고 하므로 祿眞은 말하기를 “木工이 집을 지을 때 그 재목의 큰 것은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고, 작은 것은 연목으로 쓰고, 능힐 것은 능히고, 세울 것은 세우는등 각각 그 자리에 알맞게 쓴 후에야 비로소 큰 집을 이룩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옛날 어진 재상들의 정치하는 원리와 무엇이 다르리오, 재능이 뛰어난 큰 인물은 높은 벼슬자리에 앉히고, 작은 인물은 낮은 벼슬자리를 맡겨, 안으로는 六宮으로써 온갖 정사에 힘쓰게 하고, 밖으로는 方伯, 連率, 郡守, 縣令으로 하여금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한다면 조정에는 빈자리가 없고 온갖 벼슬아치들도 제마다 인품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없겠으니, 上下가 고루 정하게 되고, 賢臣과 不肖의 분별이 서니 그런 뒤에야 王政을 바로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私에 徇하여 公을 滅하고,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擇하니, 이를 사랑하면 비록 인제가 아니라도 높은 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이를 미워하면 비록 유능한 인물이라도 구렁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하고 버림에 그 마음을 혼돈시키고, 옳고 그름에 그 뜻을 어지럽히게 되니, 이런즉 국사가 혼탁하게 안될 수 없으며, 이렇게 하자면 또한 수고롭고 근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벼슬을 주는데 청백하고 일에 당하여 공정하고, 뇌물의 근원을 막아 버리고, 청택의 폐단을 멀리하고, 물리침에는 공명정대하게 하고 벼슬을 주고 빼앗는 것을 愛憎으로써 하지 말아야 하며, 일의 輕重은 잘 저울질하여 굽히지 말며, 바른 끈과 같이 굽은 것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같이 하면 刑政이 允穆하고 國家가 和平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孫弘이 누각을 끈게 열고, 曹參이 술을 가지고 朋友 및 옛 親舊와 함께 談笑自樂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할 것이니, 하필이면 구구히 약을 먹으며 헛되이 날을 허비하며 政事를 폐하고 있을 것입니까?” 하니 角干 忠恭은 祿眞에게 사례하고 醫官을 돌려 보낸 다음 곧 가마를 마련하게 하여 宮城으로 들어가서 王을 배알하니

* 本論文은 1966年 10月 3日 第17次 大韓 神經精神醫學會 學術大會에서 發表하였음.

王은 말하기를 “卿은 요지음 약을 먹는다고 말하더니 어찌하여 來朝하였는가?” 하므로 忠恭은 대답하기를 “신이 祿眞의 말을 듣사오매 藥石과 같사옵기로 어찌 龍齒湯을 마시고 있겠나이까” 하며 그의 말한 것을 —히 王에게 진술하니 王은 말하기를 “과인이 君主로 되어 卿을 國相으로 삼자 直言하는 사람이 있어 이와같은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이라, 이를 세자가 알지 못함은 안된 일이니 곧 月池宮으로 가서 이 말을 들려 주라” 하므로 곧 月池宮으로 들어가 賀禮하니 말하기를 “일찍 듣건대 임금이 밝으면 신하의 꿈은 말을 듣는다고 하니 이는 또한 國家의 아름다운 일이라”하였다.

뒤에 熊川州(公州) 都督憲昌이 반란을 일으키므로 王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토벌할 때 祿眞은 이에 從軍하여 공로가 있으므로 王은 大阿湊벼슬을 주었으나 그는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이상이 祿眞의 條項의 전부이다. 忠恭과 祿眞에 관한 이 밖의 言及은 新羅本紀 第十(憲德王)에 憲昌의 역모 때에 從軍했던 사실과 祿眞이 論功爵賞을 할 때 阿湊로부터 大阿湊벼슬을 받았으나 이를 사양하여 받지 아니하였다는 일이 적혀 있을 뿐이다²⁾.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原文과 함께 對照해 보기로 한다.

但 昏昏曠々, 精神不快耳, 祿眞曰, 然則公之病, 不須藥石, 不須針砭, 可以至言高論攻而破之也, 公將聞之呼.

이 原文을 좀더 忠實히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다만 아주 마음이 어둡고 말은 전혀 하기 싫고 정신이 불쾌한 따름이오” 하므로 祿眞은 말하기를 “그러면 공의 病은 다만 藥石만으로 만든 안되고 침술로도 안되겠아오니 이는 지극히 마땅한 말과 見識이 높은 議論으로써 고쳐야겠습니다. 공은 나의 말을 들어 볼 것입니까?”.

儒理王 9年(42, A.D.)에 벼슬에 十七等을 두었는데 角干은 一等, 大阿湊은 五, 阿湊은 六이었는데 一에서 五까지는 眞骨이라야 이 벼슬을 받을 수 있었다²⁾. 이런 벼슬자리에 있던 이들의 “至言高論”이란 의당 政事이었겠으니 그 뒤에 따르는 祿眞의 이야기가 모두 政治 이야기이었음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史實의 기록이 또한 政事에 置重하였을 것은 짐작가는 일이다.

昏昏默默 精神不快라는 主訴와 告暇三七日하고 杜門不見賓客의 상태 그리고 藥石이나 침술 아닌 至言高論으로 快愈된 것으로 보아 角干忠恭은 틀림없는 憂鬱症(反應의 우울)이었으며 따라서 韓國의 史上 最古의 眞正한 정신병의 기록이 되는 것이다. 또한 國醫가 處方한 龍齒湯을 쓰지 않게 하고, 藥石과 침도 소용없다고

하고, 忠恭으로 하여금 “願聽玉音, 洗我惛臆”이라고 말하게 한 祿眞은 “至言高論”으로서 忠恭의 우울증을 拂掃한 사람으로서 한국 史上 최초의 정신병을 최초의 精神治療로서 고친 사람이 된다.

여기서 龍齒湯이라 함은 龍齒를 主劑로 한 湯劑로 唐代醫書에 이를 處方한 治療法이 많으며, 新羅에서도 이를 썼으며, 龍齒란 前世紀 象類의 齒의 化石으로 成分은 주로 炭酸칼슘이라 한다³⁾.

祿眞은 醫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醫學에도 亨通한 지혜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었던 것은 이상의 이야기로 분명하다. 心臟病의 진단과 龍齒湯의 處方을 받은 宰相이 21日間의 病暇를 얻어 杜門不出하고 손을 안 받는 것을 우기고 面談을 再三 청한데에 우선 祿眞의 病者를 도우려는 誠意가 보인다. 그는 公을 보고 過勞 때문에 臥病하게 된 것이 아닌가고 첫 問診을 하는데 여기서 그의 直觀과 醫學의 지식의 水準을 알 수 있다. 風露의 犯하는 바가 되어 榮調의 和를 傷하여 病에 걸린다는 說은 漢代 就中 張仲景의 所謂 外感說(萬病風寒說)로 唐代에서도 陰陽五行說과 混行된 主要한 病理學說이라 한다³⁾. 그의 直觀의 인 첫 問診에 이미 治者 祿眞과 病者 忠恭의 관계는 成立되었다. 角干忠恭은 이내 자기 마음이 어둡고 말이 하기 싫고 정신이 불쾌하다고 호소한다. 祿眞은 자기가 疑心했던 것이 바로 들어 맞자 주저없이 진단을 내리고 상공의 意中을 打診한다. 즉, 祿眞은 공의 병이 器質的 疾患이 아니므로 藥石이나 針의 無効함을 말하고 그 대신 자기와 至言高論의 정신치료할 것을 提議한다. 상당히 심한 精神動作의 遲延이 있고 사람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 典型的인 이런 우울증의 환자는 同時에 사랑과 도움을 渴望하고 있다. 公은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은혜와 빛을 달라고, 좋은 말을 들려 달라고, 답답한 가슴을 깨끗이 씻어 달라고 애원을 한다. 이 때의 祿眞은 忠恭에게 있어 地獄에서 만난 부처님 같은, 救世主같은 것이었다. 祿眞은 治者로서의 권위를, 환자로부터의 信用을 얻고, 그 다음에는 病者가 알아 들을 수 있는 用語를 써서 길게 차근차근히 병자의 마음의 洗滌을 한다.

카타르시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祿眞은 強한 暗示로서 치료를 끝맺는다. 하필이면 구구이 약을 먹으며 헛되이 날을 허비하며 政事를 폐하고 있을 것이냐? 反問을 받은 公은 病席에서 일어선다. 祿眞에게 사례하고 醫官을 불러 보낸 다음 가마를 타고 宮城으로 들어가서 王을 배알한다. 놀란 王에게 忠恭은 祿眞의 말을 들은 것이 藥石과 같았다고, 龍齒湯을 마시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히 보고한다. 王은 대단히 기뻐하고 이를 世子에게까지 알리라 한다.

이런 일이 있는지 不過 두어달 후에, 憲德王十四年 三

月, 憲昌의 모반이 있었고, 이때에 王이 군사를 거느리고 토평할때 祿眞은 功을 세워 王이 大阿泥의 벼슬을 주었으나 그는 이를 사양하고 안 받았다. 國手的 存在인 名醫¹⁾의 진단과 處方을 반대하는 勇氣와 지혜로서 재상의 병을 정신치료한 祿眞의 性品の 一面을 엿보게 하는 逸話이리라. 列傳第一부터 第十까지가 三國史記의 卷第四十一부터 卷第五十까지이다. 列傳, 열卷에 모두 50명의 三國時代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列傳中에는 一人의 醫人도 記載되어 있지 않다²⁾. 이런 가운데에 姓도 字도 未詳인 祿眞의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것이 龍齒를 다려 먹던 시절의 病患의 “至言高論”에 依한 治療에 關한 이야기라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고 놀랍고 깨우쳐지는 일이다.

fell ill. The court physician, upon examining him, said the ill resides on his heart and therefore prescribed the ivory soup and days of rest. At this time a government official named Nokjin, who probably was not a physician himself but who apparently was well acquainted with medicine, succeeded in seeing the lord who has been refusing to see any visitors and heard the lord saying: "Only dark and mute. My mind is unpleasant". Upon which Nokjin said not an ivory soup nor any other medicine but "right words and sophisticated talk" would cure him. Chunggong wanted to hear Nokjin's words and asked Nokjin's help. Following a talk Chunggong was cured and went back to work. The King was impressed and wanted to share the pleasure with the crown prince.

ABSTRACT

A Reference to the First Authentic Case of Mental Illness in Korea

Dongse Hah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Neur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hunggong, the government minister of Silla, in 822, A.D., suffered from depression and was cured by Nokjin; his "right words and sophisticated talk". This is the first recorded case of mental illness in Korea and also the first psychotherapy in Korea.

A reference to the first authentic case of mental illness in Korea can be found in the Samkuk-saki, the oldest history book of Korea. In this book, it was mentioned that during the latter part of Silla dynasty, in 822, A. D., Chunggong, the highest ranking government official

參 考 文 獻

- 1) 金富軾：三國史記，古典刊行會，서울，1931.
- 2) 金鍾權 譯：完譯 三國史記，先進文化社，서울，1960
- 3) 三木 榮：朝鮮醫學史及 疾病史，三木 榮，堺(日本)，1955.
- 4) 金斗鍾：韓國醫學史，探究堂，서울，1966.